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과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흔히 갖추어놓은 결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는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나 기어이 해내고야만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료가 공장, 물고기선별장, 물고기행동실, 사료보관창고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어분사료생산공정의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하고 가공, 포장, 운반공정의 흐름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것을 비롯하여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어분사료생산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양어를 더욱 발전시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주려는 당의 의도를 관찰하는데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이 맡고있는 임무

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설비관리를 잘할데 대한 문제, 어분사료생산용물고기보장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테 대한 문제, 지금의 설비보다 훨씬 우월한 현대적인 팽화사료생산설비를 새로 갖추어놓을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을 돌아보고 현대적인 팽화사료생산설비들을 만들어 양어장들에 보내줄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가 당의 의도에 맞게 양어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하고 있는데 비결은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정책관찰에서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나라의 양어를 발전시키는 길에서 선구자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가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지난 기간 질좋은 건재품들을 생산하

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준 전투파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기어이 관찰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조국강산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드넓은 부지에 일떠선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자신께서 이곳에 찾아온 목적은 공장을 주체화, 현대화가 더욱 훌륭히 실현된 굴지의 종합적인 건재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철판지봉재직장, 경량강철구조직장, 수지건재직장, 제품전시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형태와 제품의 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각이한 형태와 규격, 색갈을 가진 수지창과 뉘창, 철판지봉재, 차열복합판, 수지판은 물론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철울타리, 쇠그물울타리, 각종 블로크 등을 생산하고있는데 공장의 제품이 다종다양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천리마

건재종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건재품의 생산량과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문제, 금속전구와 경량화된 가구건재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착시켜 건재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천리마

건재종합공장을 인민생활향상과 국력강화, 조국산천을 더 아름답게 변모시키고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많은 건재품들을 마음먹은대로 팽팽 생산해낼수 있는 보배공장으로 더 훌륭히 전변시키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자신께서 직접 말아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천리마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훈을 받드시여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9돐이 되여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로작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하시여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갈 불멸의 기치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총서이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만대에 걸이 빛나게 되었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찰하실 불라는 일념을 안으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였다. 주체 85(1996)년

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혁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수령님이시고 1970년대에 격폐상태에 있던 북파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혁사적인 7·4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현장을 제시하시여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3대현장의 정식화, 그 것은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찰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11월 24일, 혁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친필비 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아들여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현장의 정식화, 그 것은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찰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5대방침도 제시하였다.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의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 주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은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출기차게 전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

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에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밝혀주시면서 조국통일3대현장을 관찰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또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은 조국통일3대현장을 관찰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

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는 내외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선군의 강력한 힘, 백두의 칼바람으로 짓부서버리시며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오로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주체 84(1995)년 7월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어느 날 평양에 온 남조선의 박용길녀사를 만나시였다. 크지 않은 키에 소복단장을 한 백발의 로인을 반가이 맞으신 그이께서는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하시며 고령의 몸으로 어려운 길을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겠다고 그의 신상을 넘려하시였다. 그 자리에서 박용길녀사는 그이께 남쪽민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조상한다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름진 그의 손을 다시금 따뜻이 잡으

시고 나는 여사가 혼자 온것이 아니라 문익환선생과 함께 왔으며 수령님께 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인사를 안고온것으로 생각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문익환목사를 회고도 하시고 통일을 소망하는 박용길녀사의 마음도 해아리신 그이께서는 남녀동포들이 보고싶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뇌리에 새기며 박용길녀사는 장군님 이시야말로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는것을 다시금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새 해의 첫 아침에

주체 102(2013)년 첫 아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남북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족최대의 축원인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숭고한 조국애와 열화같은 민족애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첫 신년사에서 남녀동포들에게 따뜻한 동포애의 인사를 보내시고 조국통일의 고귀한 지침을 밝히신것이였다.

본사기자

오늘 공화국의 수백만 청년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한 애국적소행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약육강식, 부패타락한 생활풍조로 청년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도덕 육체적으로 파멸되어가고있을 때 이 땅에서는 선군청년문화가 태어나고 선군청년문화학성적중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생겨나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괴물은 청춘

의 손에 조국수호의 총검을 추켜든것도, 경제강국 건설의 어렵고 힘든 곳에서 열혈의 몸과 열정으로 최첨단돌파전의 제1번수가 되고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는 주인공들도 바로 청년들이다. 동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 혁명선배들의 아들딸, 영예군인의 길동무, 『처녀어머니』가 되여 일심단결의 화원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며 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미담들과 미풍을 창조하는 선구자들도 다름 아닌 청년들이다.

하기에 오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신분투하고 있는 공화국의 청년들은 사회

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미래의 주인공들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도도히 굽이치는 대하에도 그 시원이 있는것처럼 이 나라 수백만의 청년들에 의하여 창조되는 애국적위훈과 아름다운 미풍에도 그 것을 낳게 하는 근본원천이 있다.

그것은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 할 미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어깨걸고 함께 나아갈 미더운 동지, 전우로 굳게 밀고 높

주체 101(2012)년 1월, 수백만 청년들에게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라는 크나큰 믿음과 고무의 친필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청년절을 뜻깊게 쇠도록 조치도 취해주시고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축하문도 보내주시였다.

지난해 5월에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열도록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라는 새로운 부름이 있다. 기나긴 인류력사에 청년강국이라는 말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자기령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의리심, 아름다운 도덕기풍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조선이야말로 끝없이 밝은 미래를 가진 청춘의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의 령도에 의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승승장구하는 전도양양한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청년들의 사상을 변질시켜보려고 별의별 악랄하고 집요한 책동에 매달리고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한령도의 손길아래 이 땅의 청년대오는 보다 강위력한 강철의 대으로 더욱 장성강화되고 공화국은 청춘의 젊음으로 약동하며 비약하고 있는것이다.

진영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

이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첫 닷을 올리던 그때부터 청년증시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더욱 빛나게 구현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증시사상을 그대로 이어 청년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이 민족에 대한 강한 자부심, 사회생활에 주인공으로서 참가하려는 투철한 의식, 고상한 정신과 건전한 도덕품성을 지닌 아름답고 강의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보살피고 계신다.

사상정신적풍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시면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청년들을에게 크나큰 믿음과 고무도 안겨주시고 120여일간 낚파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려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건설자들을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얼마전 외국의 한 인터네트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올랐다.

민족대단결,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 (5)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민족통일세력과 분렬주의세력, 민주와 파쑈, 애국과 매국사이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에서 대세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었다.

천리해안의 예지로 조국통일운동 앞에 나선 절박한 문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었다.

공정한 련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 온 민족의 리익에 잘 부합되는 련방국가의 기능, 합리적이면서도 공명정대한 련방국가의 운영방법, 북파 남이다 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규정된 련방국가의 성격과 국호, 그 어떤 정치군사동맹이나 뿐력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어떤 혈강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된다고 규정한 련방국가의 대외적 지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말그대로 사상과 정견, 신앙이 어떠하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관계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의 10대 시정방침

도 전민족적통일국가의 성격에 맞게, 전체 조선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된 후 북남삼천리를 새로운 통일열기로 끓어번졌다.

새로운 통일강령에 접한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강령』,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화불』이라고 칭송하였으며 해외의 광범한 민주주의적교포단체들과 각계층 동포들도 『련방국가창설안은 5천만동포를 고무격려하는 위대한 통일헌장』,

『우리 나라가 놓인 구체적인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현실적이며 완전무결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통일위업에 한몸바칠 결의들을 펴려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지지위원회』가 결성되고 련방제통일을 지지성원하는 세계대회, 국제회의들이 열리었으며 국제적인 련대성운동이 다양한 형식으로 활발히 벌어졌다.

공화국은 통일국가의 전모를 밝힌데 이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주체70(1981)년 11월 공화국의 제정당, 사회단체련선회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

안관철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

고 북파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적당한 수의 대표들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와 같은 민족공동의 협의기구를 내용것을 호소하였으며 이 대책적제안을 담은 편지를 1366명의 남조선정치인들과 각계층 인사들, 그리고 870명의 해외에 있는 각계층 인사들과 동포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전두환파쑈도당은 공화국의 제의를 비방중상하면서 남조선에 있는 편지를 받을 대상들을 거의다 공직에서 추방하였으며 각종 『죄명』을 들씌워 탄압하고 체포, 투옥하였다.

공화국은 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반민족적, 분렬주의적책동을 폭로단죄하는 한편 련방국가창립방도를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련이어 제시하였다.

주체70(1981)년 8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제67차회의에서 민족통일촉진대회소집을 제의하는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성명이 발표되고 이듬해 2월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이름으로 북파 남, 해외 정치인들의 100인련합회의 소집제안이 담긴 성명이 발표된 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100인련합회의 참가자명단에는 남측에서 윤보선, 최규하와 같은 전직 『대통령』들과 리범석, 정일련 등 전직

『총리』들, 당시의 야당총재들, 리기택, 윤치송 등 정치인들과 송진호, 리우정, 리태복과 같은 사회단체 지도급인사들, 백기완, 리문영 등 민주인사들, 함석헌, 함세웅과 같은 사회계인사들, 김수환, 문익환, 박형규, 강원룡과 같은 교직자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전 남조선 『정부』 유엔대표팀창영, 미국 『한국인교회연합회』 고문 김성락, 전 남조선 『정부』 외무부장관 최덕신,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 명망높은 음악가 윤이상 등 일본, 미국, 유럽지역의 통일애국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민족의 총의를 모아 통일의 지름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도로 제기된 100인련합회의 소집제의는 북파 남, 해외의 각계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았으며 온민족의 단합과 통일열망고조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족대통일, 애국애족의 숭고한 경륜아래 북파 남의 현실적조건에 맞는 련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빠르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더 한층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현은경



조선반도평화체제 확립을 주장

25일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그리스도교계가 미국과 당국의 『싸드』 배치책동을 배격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을

촉로하였다.

한편 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통일위원회도 지난 18일부터 미국의 거리들에서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한편 교회들을 찾아가 이 투쟁에 련대해나설 것을 호소하는 운동을 벌리고 있다.

본사기자

였다.

기독교청년협의회도 강연회를 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싸드』 배치의 위험성을

촉로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기독인련대는 『싸드』 배치의 부당성을 밝히는 『국회』 토론회를 가지고 『싸드』 배치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평화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까자흐스탄에서는 저더러 〈카레이스끼〉(고려인)라고 했고, 〈한국〉 예산 〈년 동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라

고 한다.

우리 말을 모르니 인권침해를 당해도 항변 할 수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혼자 갈 수 없다고 한다.

2014년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이 밝힌데 의하면 도내에

있는 이른바 『다문화가정』

이 6만 4 404가구에 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도 년간 163억 1 900만원에 달하지만 동포인 『고려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고 한다.

백골도 조국이 그리워 운다는 속담이 있다.

타향살이의 설움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말이다.

하지만 남조선을 『고국』

으로 알고 찾았던 해외동포들의 심정은 하나같이 『환멸』이었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동포박대, 동포천시정책이 낳은 비참한 현실이다.

해외동포들도 우리 겨레이고 통일강국을 함께 세우고 빛내여갈 우리 민족이다.

해외동포들은 필요하면 김언리설로 끌어당기고 불리하면 까마귀 계발 던지듯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해외동포들을 저들의 동족대결과 집권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매개물로 삼는 박근혜 『정권』과 그들이 활개치는 남조선을 해외동포들이 『조국』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옹당한 것이다.

제로씨야동포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남조선에 간 그들은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

특수한 『외국인』, 즉 『고려인』들은 남조선에 온 뒤부터 자신이 『아기』가 된 기분

본사기자 김정혁

북남실무접촉을 전면거부해 나선 당국을 규탄

22일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북남실무접촉을 가로막은 피뢰통일부의 처사를 비난하였다.

단체는 통일부가 20일 현 남북관계를 구실로 북파의 실무접촉신청을 전면거부해나섰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현 실정에서 북파의 접촉과 교류를 활발히 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통일부는 반대로 격화시키는쪽으로 가고있다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이것은 남북교류, 협

력을 강화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흐름을 가로막은 폭거라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싸드』 배치를 반대하고 련선회

의를 적극 추진하여 남북이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남북언론인들의 접촉과 교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극심한 차별속에 시달리는 해외동포들

박근혜 『정권』은 남조선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여론을 내돌리며 해외동포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남조선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체험담에서 그것

을 본다.

중국 흑룡강성에서 왔다는 정연숙은 남조선에서 살면서 힘든 것은 『식당에서 일하는 조선족이라고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 『중병에 걸려도 의료보험에 안되다 보니 병원에도 못 가고 약값

도 만만치 않다.』면서 『자신은 동포가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하였다.

까자흐스탄에서 온 리 알렉세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

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자기들은 저더러 〈카레이스끼〉(고려인)라고 했고, 〈한국〉 예산 〈년 동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남조선에서 해외동포들은 동

포가 아니라 『외국인』이고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재중동포들은 『조선족』, 재로씨야동포들은 『고려인』이라 불리우며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동포박대, 동포천시정책이 낳은 비참한 현실이다.

해외동포들도 우리 겨레이고 통일강국을 함께 세우고 빛내여갈 우리 민족이다.

해외동포들은 필요하면 김언리설로 끌어당기고 불리하면 까마귀 계발 던지듯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해외동포들을 저들의 동족대결과 집권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매개물로 삼는 박근혜 『정권』과 그들이 활개치는 남조선을 해외동포들이 『조국』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옹당한 것이다.

제로씨야동포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남조선에 간 그들은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

특수한 『외국인』, 즉 『고려인』들은 남조선에 온 뒤부터 자신이 『아기』가 된 기분

비굴한 행각, 가련한 몸부림

는 로선에 집착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대북압박공조』 강화에 열을 올리였다.

이번 윤병세의 추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미국부장관과 일본외상 등 여러 외무상들과의 회담에서 『대북제재 압박강화』니, 『국제사회에 북핵불용의지』니 하면서 『대북압박공조』를 구걸해나섰다. 지어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 의장성명에 저들의 립장이 반영된 문구

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차례진 것은 외교적랭대와 수도뿐이다.

어느 한 나라 외교부장은 윤병세와의 회담시 의례적이고 호의적인 인사말을 주고받는 외교관례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면박을 주고 회담과정에 손사래를 치거나 력을 고이고

는 떻게 하나 거덜이 난 『대북압박공조』를 유지해보려 하고 있다. 얼마전 아프리카와 유럽 등을 행각한 박근혜가 『북핵이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유엔결의의 충실히 리행』을 떠들어댔는가 하면 동포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수뇌자회의때에는 『북이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상충되

는 로선에 집착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대북압박공조』 강화에 열을 올리였다.

이번 윤병세의 추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미국부장관과 일본외상 등 여러 외무상들과의 회담에서 『대북제재 압박강화』니, 『국제사회에 북핵불용의지』니 하면서 『대북압박공조』를 구걸해나섰다. 지어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 의장성명에 저들의 립장이 반영된 문구

에 저마다 망라하는 적당한 수의 대표들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와 같은 민족공동의 협의기구를 내울것을 호소하였으며 이 대책적제안을 담은 편지를 1366명의 남조선정치인들과 각계층 인사들, 그리고 870명의 해외에 있는 각계층 인사들과 동포들에게 발송하였다.

본사기자 김혜성

서론

《싸드》의 뿌리는?

얼마전에 있는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풀을 뽑아 없애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자면 그 근원부터 제거해야 한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무기를 들여오지 말고 그것으로 공화국을 핵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민족과 세계에 재앙거리인 미국의 핵이 종국적으로 없어져야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실현될수 있다는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행성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자기가 응당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조선이 『핵을 포기』하라고 하고있다.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들을 남조선과 주변바다에 계속 끌어들여 공화국을 핵타격하기 위한 연습을 벌리는것도 모자라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선제핵공격하기 위한 『싸드』까지 배비하려 하고있다. 이에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이 가만있을수가 없다.

윤병세는 『풀을 뽑아 없애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자면 그 근원부터 제거해야 한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무기를 들여오지 말고 그것으로 공화국을 핵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민족과 세계에 재앙거리인 미국의 핵이 종국적으로 없어져야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실현될수 있다는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행성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자기가 응당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조선이 『핵을 포기』하라고 하고있다.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들을 남조선과 주변바다에 계속 끌어들여 공화국을 핵타격하기 위한 연습을 벌리는것도 모자라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선제핵공격하기 위한 『싸드』까지 배비하려 하고있다. 이에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이 가만있을수가 없다.

그러니 결국 『싸드』의 뿌리는 무엇인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과 동북아시아지역을 타고았으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이 아니겠는가.

박철남

주변나라들의 미싸일과녁이 된 남조선

박근혜 『정권』이 『싸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구실은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위협』이다.

『싸드』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남조선미국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검은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이 파렴치한 기만이다.

미국이 『싸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남조선에 틀고앉은 저들의 무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남조선인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한겨레』는 얼마전 『〈미군을 위한 싸드〉』, 수도권 2500만 방어는 포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싸드』는 『인구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명이 물린 서울,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싸드』의 최대사거리는 200km이고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되면 그 반경안에는 경기, 평택, 오산, 군산, 대구, 철곡 등 주 『한』 미군시설이 대부분 들어있다. 결론은 『싸드』의 성주배치는 처음부터 주 『한』 미군방어용 이었다고 폭로하였다.

불과 48기의 미싸일을 보유한 『싸드』체계로 저들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판에 남조선을 『보

호』한다는것은 말그대로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싸드』가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줄듯이 적극 광고하며 서울지역에는 페트리오트미싸일을 추가배치 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얼마 안되는 미싸일로 날아오는 수천수만발의 방사포탄을 막는다?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의 타격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미국의 침략수단이고 대조선침략의 군사기지, 병참기지들이다.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싸드』 따위로는 막을수 없다는것을 미국도 인정하고있다.

그보다는 남조선의 미군기지들을 조준경안에 두고있는 공화국의 타격수단들에 대해 『싸드』로써는 대응책이 안된다는것이다.

남조선의 다른 언론 『YTN』은 명중성이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한 북의 장거리방사포가 일제발사하면 서울지역에 만 시간당 2만 5000여발이 떨어지며 최저요격고도가 40km인 『싸드』는 강진너 불보듯 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미국도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2015년 미국은

의회조사국보고서를 통해 남조선에서는 『싸드』에 대한 미싸일방어가 효율성이 낫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보다깊이 『싸드』가 『북의 핵, 미싸일』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다면 미국은 왜 한사코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고 하는가.

조선반도주변국들의 군사적움직임을 사전탐지하여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눈과 귀를 만들자는 것, 즉 동북아시아지역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인 것이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아시아지역에서 전략적우위권을 획득하려는 미국의 『싸드』 배치에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때문이다.

조선반도주변국들은 미국의 『싸드』 배치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리롭지 않으며 핵문제해결에는 더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는 미국에 스스로 말려들고있다고 하였다.

주변국들은 미국이 공화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것은 한갓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싸드』를 목표로 하는 군사력재

『싸드』는 위험한 전쟁의 불씨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남조선에 위협천만한 『싸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남조선보수당국은 인민들의 비발치는 항의 규탄을 모면해보려고 별의 궁색한 변명을 쏟아내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싸드』가 『북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느니, 『제3국을 침해하지 않는 방어목적』이라느니 하고 떠드는 것도 그러한 변명종의 일부이다.

하지만 까마귀에게 흔칠을 한다고 백로가 될수는 없는것처럼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써가며 변명을 해도 『싸드』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다.

『싸드』는 남조선인민들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최대로 고조시키고 재난을 몰아오는 위험한 전쟁의 불씨이다.

오늘 조선반도가 세계에서 전쟁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들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 매일과 같이 미국의 핵잠수함들과 『B-52H』 전략폭격기편대와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들과 각종 첨단전쟁장비들이 남조선에 쓰여들고 있다.

그런 속에서 『싸드』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함으로써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기로 한 목적의 하나가 승냥이의 힘을 빌어 민족의 귀중한 자산인 동족의 자위의 핵억제력을 어찌 보려는것이라는것은 아는 사실이다. 결국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화약고나 같은 조선반도에 성냥불을 그어대는 것과 같은 미련한 망동으로서 그것이 전쟁의 재난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행위라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지금 조선반도주변국들이 『싸드』 배치결정으로 남조선의 정보, 통신, 지휘, 정찰체계가 완전히 미국에 종속되고 나아가 『아시아판 나토』인 『한』 미일군사동맹구축의 가속화』를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싸드』 배치강행에 대응하여 주변나라들의 실질적인 군사적조치들이 취해지는 경우 남조선은 대국들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갈등과 마찰의 한복판에 설수밖에 없게 된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들간의 우발적충돌이 일어난다면 임의의 순간에 『싸드』를 겨냥한 국적불명의 핵타격수단이 남조선에 날아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조선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싸드』를 배치한 『덕』에 남조선은 대국들의 충돌의 한복판에 서고 조선반도가 전쟁판이 될수 있다. 우리 겨레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조선반도가 대국들의 짬에 끼워 렐강들의 각축전장이 되고 전쟁의 무대로 되었던 쓰라린 체험이 있다. 『싸드』의 배치로 이러한 쓰라린 력사가 되풀이되는것을 겨레 누구나 바지 않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드』를 기어코 제방에 배치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친미굴종행위야말로 외세를 위해 이 땅을 전쟁의 재난터로 만들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리영환

『싸드』 배치를 결사반대한다, 국민의 힘으로 배치계획 철회시키자

남조선 여러 지역에서 항의투쟁 전개

남조선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당국의 『싸드』 배치책동을 규탄하는 항의운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23일 서울에서 『싸드』 배치책동에 항의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1000여명의 각계층 시민들은 청계광장에서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그들은 『싸드』 배치계획을 철회시키자면 성주주민들과 모든 국민이 힘을 합치고 이를 리간

최근 남조선보수집권층이 미국과 약합하여 『싸드』를 배비하기로 결정한것과 함께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위험천만한 전쟁위기에 몰아가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국에 대한 핵선체타격계획을 내놓고 떠들어 대고있는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잠수함과 각종 전투함선들을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꾸역꾸역 들이밀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들에 참가하여 무자비한 공습과 살륙만행으로 악명을 떨친 제169전투비행단까지 오산미공군기지에 전개하였다.

현시기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은 결코 종이장우의 계획이 아니며 기정사실화된 현실로 되고있다.

승어가 뛰면 망동이도 떤다고 남조선군호전광들도 미국의 북침핵전쟁도

오늘날 자신의 군사주권마저 미국에 내맡긴채 미국이 서라면 서고, 기라면 기고, 죽으면 죽어야 하는것이 남조선군의 현실이다.

일단 유사시 공화국의 무시무시한 군사적위력에 대하여 잘 알고있으며 몹시도 두려워하고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이 가장 위험천만한 죽음터로 남조선군을 내몰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남조선군이 자기의 동족을 원쑤로 대하여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편승하여 무모한 불장난에 뛰어드는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이며 외세의 리익을 위해 셔지고 불에 뛰어드는 어리석기 짜이 없는 일이다.

조선반도에서 기어코 북침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며 그에 추종하는 한중도 못되는 미국역적 호전광무리들뿐이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남조선군 수십만 청장년들이 아까운 목숨을 미국놈들을 위해 속절없이 내던져야 하겠는가.

남조선군사병들과 장교들은 조선반도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자기들의 운명선택에서 처신을 바로하여 할것이다. 본사기자 서명수



«박근혜, 네가 뭐길래…»

지난 28일 박근혜당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지원재단》 설립을 끝끝내 강행하였다.

이것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일본의 천인 공노할 파거죄악을 덮어버리려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반민족적 행위이다.

일본군성노예 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며 온갖 비인간적 만행



을 감행한 특대형반인륜 범죄이다.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잔악무도한 일본의 성노예범죄는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인 정파 사죄, 배상이 없이는 최종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당은 몇 푼 안되는 돈을 명목으로 일본의 만고죄악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당에게 있어서 일본파의 군사정치적 맹

은 사활적인 것이며 여기에 장애로 되는 것이 바로 《위안부문제》인 것이다.

체 대결, 《흡수통일》 야망실현을 위해서는 피비린내 나는 일본의 과거죄악도 덮어버리고 구천에 사무친 민족의 원한도 안중에 없는 것이 바로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 박근혜역적 폐당이다.

하지만 역적폐당이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의 꽃다운 청춘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일본반동들의 치명리는 특대형 죄악을 몇 푼의 돈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지금 역적폐당의 《위안부지원재단》 설립 망동을 두고 남조선 각계에서는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울려 나오고 있다.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때문이다.」, 「박근혜, 네가 뭐길래 이 땅에 사무친 평흔들의 원한을 우통하느냐.」, 「수십년간 걸치는 우리의 투쟁을 한순간에 말아먹은 너도 조선 사람이다.」 등의 웨침을 퍼눈 물속에 토해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국정신대문

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 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재단 설립은 불법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와 재단 설립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조선의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에서도 《위안부지원재단》 설립을 놓고 《파연 누구의 〈정부〉 인지 의심스럽다.》, 《재단 설립이 국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더욱 폭발시키고 있다.》,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로끌적으로 울려 나오고 있다.

박근혜역적 폐당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일본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고 제 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일제가 감행한 천인 공노할 성노예범죄는 백년, 천년이 흐른다 해도 절대로 묻어버릴 수 없다.

박근혜당의 반민족적인 친일 매국죄악은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부패 《정권》의 맡기증상

최근 남조선에서 부정부패 사건들이 런속 터져 나와 썩을대로 썩은 현 《정권》의 진모습을 날 날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당이 청와대의 별관에서 밀 실회의를 벌려놓고 《부

실기업》으로 판명된 대 우조선해양에 40억 US\$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해주도록 일부 은행들에 강제로 내 리먹인 사실이 최근 남조 선언론을 통해 폭로되어 각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설립될 때부터 《유신》 독재자와 그 가문이 깊숙이 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하여 이번 불법자금지원 사건의 배후에 집권자의 마수가 뿐만 아니라 그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법무부에서 검사장을 하던자가 《백순》 게임제작회사에 대한 수사를 떨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회물을 받아먹은 고위 검사장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청와대에서 《실세종의 실세》로 알려진 민정수석비서관이 문제의 인물을 검사장으로 내세워준 대가로 《백순》 게임제작회사에 자기 처가집부동산을 거액으로 사들이도록 내리먹인 사실까지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보수집권층이 권력을 등대고 감행한 부정부패 사건들과 함께 흑막속에 가리워졌던 정치비화들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남조선 《국회》의 원선기 때 친박근혜파의 핵심이라고 하는자들이 《대통령의 뜻》이

라고 하면서 비박근혜파 후보에게 선거출마 지역을 바꾸도록 협박을 가하고 여기에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까지 합세한 사실이 폭로되어 정계, 사회계가 그야말로 죽기마처럼 끊고 있다.

여기에다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현 집권자와 《새누리당》이 목터지게 떠들던 《국정원》 내직원 감금 사건이란 것이 정보원의 불법 《대선》 범죄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현 《정권》이 불법 《정권》이라는 것이 또 다시 명명백백해졌다.

가판은 현 집권자가 시시각각 터져나오는 전대 미문의 특대형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사죄할 대신 《비난에 훈들리지 말아 한다.》느니, 《당당하게 소신을 다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며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과 독선의 국치로서 파렴치하기 짜이 없는 청와대 주인만이 해낼 수 있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정권》을 태우았을 현 남조선당국자는 집권 후 오만과 독선에만 사로잡혀 특권의식과 사리사욕의 요직들에 끌어들여 부정부패 행위를 조장시켜 왔다.

그러니 썩을대로 썩은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온갖 엄청난 부정부패 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깨끗한 정치》를 중념불 외우듯 해온 박근혜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나타난 현실은 박근혜 야말로 온 남조선을 사기협잡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놓은 주범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야당들과 언론들은 권력과 위총의 이러한 부정부패 행위는 《전대 미문의 사태》이며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련이어 드러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들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나고 있는 것이다.

바빠맞은 남조선 법무부와 《새누리당》이 《사죄》니, 《철저한 수사》니 하며 파문을 끊자고 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으나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오늘 남조선 언론들과 사회 각계에서 《〈정권〉 말기 현상이 너무 이르게,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나온다.》, 《총체적 난국은 오만과 독선을 일삼는 박근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표를 찍은 이 손을 잘라던지고 싶다.》고 규탄奔격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

남조선 사회를 썩고 병들게 하는 특등 정치 간상배, 사기협잡군, 온갖 부패와 범죄의 주범인 청와대 안주인이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은 멀지 않았다.

문제는 보수당국의 교육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것을 보충하느라 대학들에서 등록금을 계

폐배자 의 광대극

최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 정전협정 체결 63년이 되는 7월 27일을 계기로 그 무슨 기념행사라는 것을 요란하게 벌려놓았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은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자들은 물론 그 후 손들까지 물어들여 《부산유엔군 표지》 방문, 《청소년 평화 캠프》, 《정부 기념식》, 《감사 만찬》 등 각종 광대놀음을 벌리다가 나중에는 훈장을 수여하고 기념 공연까지 벌려놓았다.

남조선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전승 기념식》이라는 것이 진행되었다.

《유엔군은 평화수호의 영웅들》, 《조선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 따위의 제작과 자화자찬들이 이번 광대극의 기본 줄거리였다.

이것은 폐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 세계면전에서 톡톡히 망신당한 저들의 폐전의 혁신을 가리워 보려는 것으로서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국을 우두

머리로 하는 침략 세력의 비참한 폐배는 그 무엇으로 써도 가리울 수도 감출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다.

청소년 공화국을 요람 기에 없애 버리려고 달려들었던 미국은 조선전쟁에 현대적 무기와 최신 군사 기술로 장비된 저들의 방대한 유태 공군 무력과 15개 추종국가 군대, 남조선군과 일본군 국주의자들을 포함한 200여 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였으며 가장 야만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으나 끝끝내 항복서나 다름 없는 정전 협정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미국 혁신에 없는 참담한 폐전사를 기록하였다.

조선전쟁에서 공화국의 승리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영예로운 것이었으며 이때부터 미국의 《강대성》 신화는 깨여지고 조미 대결의 승패는 결정되었다.

그런데도 폐전자들이 모여 앉아 그 무슨 《전승》이니 《기념》이니 하고 있는 것이 아말로 산송장들의 광대극으로서 삶은 소도 웃길 회비국이 아닐 수 없다.

세상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광대극의 리면에는 진상을 오도하여 수치를 모면하는 한편 저들이 일으킨 침략적 본사기자 황진옥

농민들을 죽음에로 내보는 살인 《정부》

남조선에서 농민들은 한해에 농사를 두번 짓는다고 한다.

한번은 자신의 땅 위에서, 한번은 아스팔트 위에서.

가을걷이를 마친 후 농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온다.

그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을 《아스팔트 농사》라고 한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쌀시장 개방으로 힘들게 농사를 짓고도 본전도 못 찾고 밀지게만 되었으니 《정부》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나온, 그렇게 말하는 농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뿌려왔다.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의 한 의원이 밝힌 대로 하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때 2021의 최루액이 섞인 물을 물대포로 쏘아댔다고 한다.

그때 백남기 농민이 물

대포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지었다.

쌀시장 개방은 지금까지 혁대 남조선 《정권》이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인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2014년 7월 쌀시장 개방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물가는 올라도 농산물 가격은 내려만 가는데다 수십 개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하여 파일, 남새, 육류 등이 수입 산에 밀려나 남조선 농민들의 생활은 그지없이 혼란 되고 있다.

쌀시장이 개방된 것은 남조선 농민들에게 있어서 난파도에 폭풍을 만난 격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를 끌어들여 성주군

농민들의 명줄을 끊어버

려하고 평택 군사 기지처럼 농토를 외세의 군사 기지로 떠맡기는 등 박근혜 《정권》은 친미 사대, 동족 대결로 농업의 황폐화를 앞당기고 있다.

농업이 죽어가고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은 그 무슨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떠든다.

저들의 반농민, 반농업 《정책》으로 1차 산업인 농사도 못 지을 판에 《6차 산업》을 운운하고 있으니 박근혜 《정권》은 파렴치한 《정권》이다.

농민들은 이제 《정부》를 믿지 않는다.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매국 행위》, 《농업과 농민들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추태》, 《박근혜 매국 《정권》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절규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남조선 농민들이 투쟁에 나선 것은 응당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생존권을 요구하여 떨

쳤던 사회적 문제로 만든 장본인이 다름 아닌 현 집권자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자결할 때 현 집권 세력은 막대한 돈을 외세의 위험 천만한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고 부정부패로 제 돈 주머니를 불구기며 여념이 없다.

남조선 언론인들은 《전투기 F-35》 40대를 구매하지 않으면 《반값 등록금》 7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사대와 전쟁, 저 하나님의 안일과 향락에 미쳐 학생들의 배움의 꿈마저 짓밟는 현 집권자에 대한 남조선 민심의 분노이다.

최종진

짓밟힌 꿈, 분노의 폭발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한명당 평균 640만 원의 빚을 진다고 한다.

취직의 문은 더욱 좁아지고 빚은 늘어만나니 남조선 사회를 저주하며 수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형편이다.

사태가 이러한 틀에 들어온 집권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지난 4월 현 집권자는 언론사 편집 및 보도국장

들을 청와대로 끌어들여 벌린 오찬간담회라는데서 야당과 사회 각계가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해결 문제에 대해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해버렸다.

《대선》 때 등록금을 절

제 돈 주머니를 불구기며 여념이 없다.

남조선 언론인들은 《전투기 F-35》 40대를 구매하지 않으면 《반값 등록금》 7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사대와 전쟁, 저 하나님의 안일과 향락에 미쳐 학생들의 배움의 꿈마저 짓밟는 현 집권자에 대한 남조선 민심의 분노이다.

</

